

프랑스 제4공화국의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영화 정책 연구*

민진영

(전남대학교 부교수)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프랑스 제4공화국시대에 AOF(프랑스령 서아프리카)지역의 영화 정책과 적용의 실제사례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4공화국은 2 차 세계 대전으로 실추된 프랑스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제국주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포장하기 위해 해외령 영화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서아프리카에 관한 교육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산업 프로젝트를 가동하였다. 식민정부는 식민지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화를 지목하고, 교육용 영화를 촬영, 상영 및 배포하는 영화 산업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했다. 그런 과정 중에 서아프리카의 계몽에 힘쓰는 영화를 제작하여 널리 알렸으나 이 영화가 오히려 식민성을 더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일어났다. 프랑스 식민정부는 AOF지역에서 위원회의 허가증을 받은 영화만 상영하도록 했으며, 프랑스영화의 쿼터제도 준수하도록 감시했다. 지역의 관습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프랑스영화 이외의 영화는 상영을 제한했다. 영화검열위원회는 특히 서아프리카 원주민을 선동할 수 있을 법한 영화로 아랍영화와 미국의 서부영화를 지목했다. 식민정부는 아랍영화 상영을 꺼려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주민들이 이슬람 지도자를 숭배하는 마음을 키우며 프랑스의 식민제국주의에 저항의 싹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식민정부는 폭력이 난무하는 미국의 서부영화 상영도 꺼려했는데, 그 이유는 순진한 AOF지역민들이 폭력을 모방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고, 동시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언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AOF지역민들이 식민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 동요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주제어 :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영화, 영화 검열, 프랑스 제4공화국, 해외령 영화위원회, 영화검열위원회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2020-2032)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머리말

프랑스가 초기영화산업에서 앞장서 있었다는 점은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다. 뤼미에르 형제가 영사기를 발명하고 그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세계에 영화라는 매체가 전파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사 초기부터 프랑스는 아프리카에 영화를 상영했고 프랑스 식민지 경영에 있어서 영화는 동화에 의한 문화통치에 효과적이었다. 특히 프랑스는 서아프리카 다카르에 AOF(프랑스령 서아프리카 Afrique Occidentale Française)의 본청을 두고 이곳을 중심으로 서아프리카 전역에 영화를 보급하였다.

1934년에 제정된 라발 법령(Décret Laval)은 프랑스 식민지 영화 검열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이 법령은 프랑스 식민정부가 식민지 곳곳에 관리감독 위원회를 조직하여 서아프리카 지역의 영화 상영을 허가하는 허가증을 발급 또는 거절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¹⁾

국내에는 라발법령을 중심으로 서아프리카 지역 영화 정책을 다루는 연구가 있지만(민진영 2020), 이 연구는 1930년대까지를 다루고 있고, 그 이후 시기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식민시기가 5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음을 볼 때, 제4공화국(1946~1958) 시기의 서아프리카 영화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4공화국 시기를 중심으로 식민지에 대한 프랑스의 영화 정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국외에서도 AOF에 대한 영화 정책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식민당국이었던 프랑스는 식민지 영화정책에 대해서는 20세기 내내 거의 도외시하였고, 그 외 서양의 몇몇 아프리카 영

1) 라발 법령Décret Laval의 본래 이름은 《영상 및 음반디스크 관리감독 조직》이다. 라발 법령은 당시 식민령 장관이었던 Pierre Laval의 이름을 가져와 라발 법령이라고 불리었다. 법령은 식민지 곳곳에 관리감독 위원회를 조직하여 영화가 지역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지를 검토하여 영화 상영을 허가하는 허가증(visa)을 발급하거나 거절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는 민진영(2020)에서 다루고 있다.

화전문가들이 서아프리카 영화정책을 다루고 있으나 그 연구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 프랑스는 식민통치에 있어서 제국주의에 대해 반성해보기까지 긴 시간이 흘렀다. 60년대 초반에 서아프리카국가들이 해방되었지만 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적 시선은 200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도 제한된 학자들의 연구에서만 드러나고 있다.²⁾ 영미권 학자들은 프랑스의 식민주의를 비판하면서 영화정책에도 철저히 제국주의가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다.³⁾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제4공화국의 AOF 식민지 영화 정책을 연구하되, 그 이상과 실제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해외령 영화위원회의 설립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의 제4공화국 시대가 열렸다. 전쟁을 치른 후에도 여전히 식민지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던 프랑스를 향해 전 세계에서 경계와 비판이 생겨났고, 프랑스도 이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탈식민에 대한 염원이 솟아나고 있었고, 서아프리카에서는 특히 영화관을 중심으로 정치적 메시지가 거세게 표명되고 있었다.(Vieyra 1972:12~13) 영화관에서는 어두운 환경에서 집단적으로 영화를 관람하기 때문이었다. 어두운 영화관 안에서는 익명상태로 정치적 표현이 가능했고, 여럿이 집단적으로 관람하기 때문에 영화관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정치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제4공화국의 설립이라는 정치

2) 프랑스에서 아프리카 식민시대 영화 검열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는 Odile Goerg를 꼽을 수 있다. 이 연구자가 독보적으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지만, 1960년 AOF독립 이후 40년이 지난 2000년대 이후에서야 시작되었다는 점이 아쉽다. Odile GOERG,(2012, 2012-2013, 2015)참조

3) 영미권의 주요연구 결과는 다음을 꼽을 수 있다. Ukadike(1994), Genova(2013)

사회적 상황 변화로 인해 프랑스 식민정부는 영화 정책을 견고화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고, 해외영토부 장관⁴⁾ 체제 하에 영화 검열을 보완하고 개혁해 나갔다.

4공화국이 시작되던 즈음에는 전쟁 전에 시행되었던 라발 법령에 대한 실제적 반응이 흐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진 일부 공무원, 정확히 말하자면 일부 군인들은 영화에 대한 검열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1949년에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지상군을 지휘하던 구스타브 보르니-데보르드 Gustave Borgnis-Desbordes장군은 서아프리카 총독에게 다음과 같은 영화들을 위해하다고 판정하면서 식민지에서 관련 영화들을 상영 금지시킬 것을 제안한다.

1. 위험한 영화 : 점령군에 대한 저항을 부추기고 비밀 투쟁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영화
2. 경향성 영화 : 식민주의적 또는 인종주의적 요소, 특히 유색인종이 백인과 대결하는 장면 또는 원주민의 전통에 충격을 가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영화
3. 비도덕적 영화 : 백인 여성의 방탕을 보여주는 영화.⁵⁾

식민지를 감시해야 하는 군인의 시선이긴 하지만, 그의 제안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식민지에서 영화관람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식민정부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의식한 듯 비밀투쟁의 방법이 담긴 영화를 ‘위험한 영화’로 구분하고 검열의 제1순위에 두고 있다. 또한 백인에 대한 저항이 싹트지 못하게 하려고 백인과 흑인

4) 1946년 1월 26일 식민령 장관(Ministre des colonies)은 프랑스 내각에서 해외영토부 장관(Ministre de la France d'Outre-Mer)으로 직책명이 바뀌게 된다.

5) ANS 21 G 193(174) (Novembre 1949) Contrôle et censure cinématographique 1948~1958, Odile Goerg 2015:205에서 재인용(ANS는 Archives nationales du Sénégal의 약자로서 www.archivesdusenegal.gouv.sn에서 검색서비스가 가능하나 세네갈의 네트워크 문제로 현재는 서비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재인용을 통해 근거를 밝힌다)

이 대결 구도로 등장하는 영화를 위해하다고 판정하였다. 더불어 백인 여성을 보호하고 감히 넘볼 수 없게 하려고 백인 여성의 방탕을 보여주는 영화 또한 금지하고자 했다. 검열 대상 영화를 세 가지로까지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당시 AOF지역 내에 영화라는 매체가 식민지 아프리카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49년 식민령 장관 산하에 ‘해외령 영화위원회 (Commission du cinéma d’outre-mer)’가 설립된다. 1949년 해외령 영화위원회 산하 영화시행협회 사무총장인 앙드레 르메르(André Lemaire)는 <흑아프리카와 본국 사이의 정보 및 교육문제 보고서>에서 “영상(영화)은 시각매체에 의한 강력한 표현이므로 미발달된 인구집단에게 다양한 지식을 가장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⁶⁾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칙령에 설립 동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설립의 주된 취지는 교육 영화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 해외령에서 영화 발전의 문제와 해외령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영화의 문제가 당국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칙령은 위원회가 “해외령에서 정보, 교육, 지식의 도구로써 영화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본국 내에서 해외령에 대한 정보의 도구로 영화를 활용하는 것”을 탐색해볼 것을 지시하고 있다.(Genova 2013:32 참조)

위원회는 아프리카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탄생하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아프리카 식민지경영을 지속하기 위해 아프리카인들에게 필요한 지식 체계를 채울 수 있는 영화제작과 배급을 책임질 영화산업단지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 기관에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시설지원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어야 함을 체감한 것이다.

6) André Lemaire, “흑아프리카와 본토 사이의 시청각 교육과 정보에 관한 보고서 요약(Éléments d'un rapport sur les problèmes d'éducation et d'information audiovisuelles entre l'Afrique noire et la métropole)”(1949년 12월 10일자), CAOM FM 1 AP 2127/9, Genova, 2013:20에서 재인용

이것은 서아프리카를 점령한지 반세기가 넘은 시점에서 식민지에서 프랑스의 영화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II. 교육영화 제작과 영화산업 프로젝트

식민지에서 영화를 통해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에는 문맹률이 높은 원주민들을 영화를 통해 교육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 식민지 원주민을 교육하는 것 이외에도 해외령 영화위원회의 임무에는 본토의 관객을 위해 교육 영화를 제작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프랑스정부는 본토의 국민들에게 해외령에서 제국주의가 이룬 것을 선전하고자 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여론이 프랑스가 식민 강대국으로 남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프랑스 관객들을 위해 식민제국주의 선전용 교육 영화를 제작하고 유포함으로써 비아프리카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프리카인에 대한 인식을 통제할 수 있었다.

교육영화에 대한 적절한 사례로는 <흑인 농부Paysans noirs>(Georges R gnier, 1949)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흑인들이 사는 서아프리카 농촌에서 경작, 목축, 가사 등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다. 흑인들이 농장에 들어서서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장면을 촬영하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음식문화를 화면에 담았다. 또한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맡고 남성이 농사와 목축을 맡는 내용을 촬영하여 남녀의 역할분담이 확실한 가부장적 부족문화를 유지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식민정부의 관리가 개량농기구를 보급하고 추수와 유통의 문제를 관장해 준 것을 칭송하기도 하였다. 프랑스 덕분에 열악한 서아프리카 지역의 농촌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서아프리카의 농촌 문화가 열등하며 프랑스

의 원조로 훌륭하게 개량되었다는 취지의 영화임이 틀림없다. 식민정부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농사법을 선진화시켜주어서 수확량을 늘렸으며 백신을 통해 농촌인력들이 건강하게 농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왔음을 선전했다. 더불어 프랑스본토 사람들에게는 열악한 서아프리카의 농촌을 눈부시게 발전시켜 준 것을 선전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영화는 서아프리카인들에게는 식민제국주의를 선전하는 교육영화이며, 프랑스 관객들에게는 제4공화국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잘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선전영화였다. 아프리카 영화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폴린 수마누 비에이라(Pauline Soumanou Vieyra)는 이 영화가 프랑스 본토에 상영됨으로써 프랑스인이 아프리카인을 무시하고 열등한 민족을 계몽해준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였다는 점에서 분노하였다.(Vieyra, 1958:109-110) 프랑스인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를 부당하게 심어 주는 영상이라는 것이다. 서아프리카 영화에서 급진적 영화를 제작했던 우스만 셈벤(Ousmane Sembè) 역시 아프리카의 열등함을 다룬 인류학적 영상이나 민족지 영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Jonassaint 2010:241 참조) 아프리카의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독특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개한 문화라고 단정 짓는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해외령 영화위원회는 아프리카에 대한 교육영화를 제작해야 한다는 열의가 강했다. 위원회는 교육영화 제작을 위해서는 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이를 위해 영화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해외령 영화위원회는 당시 서아프리카의 경제 전반에 대한 결정을 내리던 AOF경제심의회(Conseil économique de l'Afrique occidentale française)에게 영화제작 인프라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AOF경제심의회는 해외령 영화위원회의 소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경제심의회 보고서(Bulletin du Conseil économique)>를 통해 프랑스와 서아프리카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 영화의 중요성을 저울질하는 결의안, 보고서, 기사들을 수개월에 걸쳐 연이어 발표

하였다.(Genova 2013:33) AOF경제심의회는 영화가 서아프리카와 프랑스 상호간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영화관, 영화 상영 장비, 영화 제작 장비 등의 물리적 인프라를 확보하여 서아프리카에서 상영되는 영화가 지역주민들에게 프로파간다의 매개체이자 프랑스적인 사고를 전파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런 흐름들을 통해 영화 분야에서 서아프리카의 영화산업 발달을 명확하게 금지했던 프랑스의 전반적 식민 정책이 완전히 반전된다. 이제까지는 영화관을 세우는 정도에 만족하고 아프리카인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쳤고, 교육이나 영화산업을 아프리카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은 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교육용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산업 프로젝트를 가동하고자 결정한 것은 프랑스가 제국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그대로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영화 제작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영화산업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영화산업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인 산업시설이 우선되어야 했는데, 서아프리카의 당시 산업 상황은 그렇게 낙후한 상황이 아니었다. 영화관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전기가 공급되고, 영화 필름이나 영상장비의 운송이 용이하도록 철로가 갖춰져야 하는데, 서아프리카지역에는 이런 기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상당했기 때문에 영화산업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에 앞서 갖춰져야 할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 영화산업 프로젝트는 1960년대 서아프리카 독립 이후 비에이라가 영화산업 시설 장비 프로젝트를 주장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IV. 검열정책의 적용 사례

식민정부는 프랑스영화의 상영은 적극 권고하는 반면, 그 외 국가들의 영화 상영에 대해서는 검열을 강화했다. 프랑스는 라발 법령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더욱 구체화하기에 이른다. 프랑스영화에 쿼터제를 적용하여 삼분기마다 35개 이상의 프랑스영화를 상영하고, 상영작품이 2시간여의 분량의 영화들로 규격화되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⁷⁾ 이 명령이 잘 시행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영화검열위원회(CCFC, Commission de contrôle des films cinématographiques)를 1954년에 조직하였다. CCFC는 영화의 내용에 따라 영화관람 연령 제한을 16세로 제시하고, 16세 미만 관람 불가 영화의 리스트를 공표했으며, 쿼터시스템 준수, 상급고문관의 감독 정례화 등도 제시하였다.⁸⁾

프랑스영화 쿼터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영화검열위원회는 외국 영화에 대해 상영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특히 이집트를 중심으로 제작된 아랍영화가 AOF로 유입되고 있었던 점과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미국이 엄청난 양의 영화를 제작하여 아프리카에 유통하고 있었던 점으로 인해 영화검열위원회는 영화 상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열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영화에 대해서는 상영허가증을 쉽게 발급하였지만, 아랍영화와 미국영화에 대해서는 상영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부분 삭제 명령을 수용하는 조건 하에서만 허가증을 발급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해외영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검열로는 아랍권 영화들에 대한 제한조치를 들 수 있다. 이슬람 교인들이 다수인 서아프리카지역에는 아랍영화, 특히 이집트에서 들어온 아랍영화들이 인기를 끌었다.

실제 다카르에는 아랍영화가 1927년부터 1945년 사이에는 연간 9편 정도에서 1945년부터 1963년까지 연간 51편 정도로 급증했다는 기록이 있고(Georg 2015:190), 1953년부터 1954년까지 아랍영화는 다카르에서 상영된 767편의 전체 영화 중 13%를 차지했다는 기록도 있다.(Georg, 2015, 191)

7) 이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민진영, 2017)

8) CCFC의 보고서인 <supplément au bulletin d'information> (n°27 du CNC avril 1954)에 따른 것이다.

기네(Guinée)의 소도시 보케(Boké)에 있는 작은 영화관에는 1954년 가을에 상영된 23편의 영화 중 5편은 아랍영화이며, 그 제목이 <Hayart el Hayart>, <Nadia>, <Antar et Abla>, <El Azima la chérie>, <Le fils du pauvre>라고 되어 있다. 이 영화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영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 비교적 큰 도시인 킨디아(Kindia)에 있는 COMACICO 체인 영화관은 130편 중 아랍영화를 9편만 상영하였는가 하면, 기네 내륙의 중소 도시인 마상타(Macenta), 시귀리(Siguiri), 캉캉(Kankan)에 있는 렉스(Rex) 영화관에서는 아랍영화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며, 전체 40편 중 26편이 미국영화라고 기록되어 있다. (Georg 2013:301)

아랍영화에는 마호메트 일대기를 통한 종교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줄거리와 친숙한 멜로디의 영화음악까지 사회적·문화적 공감의 높이가 형성되어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서아프리카의 이슬람교도들은 이집트로부터 들어온 이 영화들을 반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에 거주하고 있던 유럽인들은 아랍영화를 반기는 아프리카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멸하고 무시했을 뿐 아니라 불안과 적개심을 갖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아프리카에서는 내용과 관계없이 이집트 영화를 한 때 금지하기도 했다. 특히 이집트 혁명의 대표자이자 범아랍주의를 표명하는 가말 압델 나세르 Gamal Abdel Nasser 정권의 영화가 서아프리카의 무슬림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였고, 또한 식민 당국은 이집트 정부가 1954년 이후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식민지인 알제리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⁹⁾ 실제로 1957년에 서아프리카의 식민관료들은 이집트 영화가 이미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지역의 청년들을 때

9) 나세르는 1956년 수에즈 위기에서 프랑스와 그 동맹국들인 영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1957년 알제리독립전쟁 당시 프랑스 정부가 잔인한 방식으로 알제리를 진압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AOF 식민 행정가들은 나세르 정권이 강화되거나 그가 옹호하는 반식민주의 사상이 서아프리카에 퍼지는 것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료시킬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었다. 그 해 8월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 세계의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이집트 정권을 찬양하는 이집트 영화들보다 더 확실한 반-프랑스 또는 반-유럽 프로파간다의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다”라는 기록도 있다.(Genova, 2013:34)

1950년대 후반 서아프리카의 정치적 독립이 다가오자, 프랑스는 이집트 영화와 이슬람교의 부활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우려하였다. 1959년 영화검열위원회는 1953년까지만 해도 상영이 가능했던 마호메트의 일생을 다룬 <이슬람의 새벽(L’Aube de l’Islam)>(1951)을 금지시키면서 그 사유를 “영화에서 종교 의식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면 성전을 과도하게 미화하게 된다”(Genova, 2013:35)고 밝혔다. 이 상영 금지 조치 사건은 서아프리카 지역에 탈식민주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운동이 탈식민적 분위기에 영향을 끼칠까 염려하는 프랑스의 속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랍영화에는 아랍어로 된 영화들도 포함되었다. 프랑스 관료들은 식민 지배층에 반대하는 이슬람의 연대를 주목하고 있었고, 지역민들의 종교적 열의가 불붙는 것에 아랍어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반식민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화일지라도 아랍어로 제작된 영화들은 금지하였다.(Goerg 2013:303~305 참조) 지역 내에서 아랍어 장려가 가져올 수 있는 문화적인 영향을 우려하였고 또한 아랍어 단어나 문장을 통해 식민 체제 전복의 메시지를 전달할까 봐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랍어로 된 영화와 방송들은 아랍인을 지배하는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게 적대적이거나 불리한 암시를 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랍어와 민족주의간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아랍어로 된 영화들을 제한하였던 것이다.¹⁰⁾

10) 몇몇 연구자들은 식민정부가 이슬람지도자들과 결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서아프리카 원주민들 중 상당수가 이슬람 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식민정부가 이슬람 지도자들과 대결구도를 펼친다면 많은 서아프리카

아랍권의 영화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된 영화의 경우도 수량, 상영 시간, 그리고 내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식민 관료들은 할리우드 제작물들이 내거는 친미 프로파간다에 대해 불안을 표했고 엄격한 검열을 통해 미국을 미화하는 몇몇 영화들의 상영 금지를 주장했다. AOF 지역민들에게 해로운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도 그럴 것이 1950년대에 서아프리카에 가장 많이 소개된 외국영화는 단연 미국영화였고 그중에서도 살인, 강도, 반란, 간음 등의 장면이 담겨 있는 갱스터영화와 서부영화가 대다수였다.¹¹⁾

1930년대부터 이미 미국영화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상당수가 노출되었었고, 대부분 흥행을 겨냥한 B급 영화가 아프리카에서 줄곧 수입되고 있었다. 2차 세계 대전을 치루면서 비시정권은 미국의 서부영화를 아프리카영토에서 상영 금지시켰다. 프랑스 식민지에서는 프랑스와 나치에 관계된 영화 외에는 상영을 금지시켰던 것이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4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다시 상황은 역전된다. 2차 세계대전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겪은 미국은 다수의 영화를 제작하였던 반면, 프랑스는 긴 전쟁을 치르느라 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겨를이 없었다. 공화국은 미국 영화의 아프리카 유입을 막을 수 없었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영화배급사인 COMACICO가 1955년에 상영 허가를 요청한 20여 편의 영화 목록에 3편의 서부영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을 한 아들(Le fils de visage pâle/Son of Pale face)> (Frank Tashlin, 1952), <웨인(L'homme des vallées perdues/Shane)> (George Stevens, 1953), <포니 익스프레스(Le triomphe de Buffalo Bill/Poney Express)> (Jerry Hopper, 1953)이 바로 그 제목들이다.(Goerg 2012-2013:78) 이를 시작으로 서아프리카에는 다시 서부영화들이 상영되게 된 것이다.

영화검열위원회는 할리우드에서 수입되는 폭력적인 서부 영화와 갱

지역민들이 식민정부에 저항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로서는 아랍영화를 꺼려하면서도 아예 상영을 금지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다.

11) ANS 21 G 193 (1950 11월 19일자 탄원서) Odile Goerg(2012:182)에서 재인용

스터 영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AOF지역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대항하는데 있어 총기를 사용하는 등 위험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서아프리카의 지역별 입법 기관, 그리고 제국 내 심의 조직에서의 논의를 기록한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의 서부 영화와 갱스터 영화는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잘못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효과를 가져왔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공중 질서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었다.(Goerg 2012-2013:80) 식민정부는 순진한 AOF지역민들이 폭력이 난무하는 미국의 서부영화를 모방할까 두려워했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인들이 인디언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AOF지역민들이 동요할까봐 염려했다.

V. 결론

지금까지 프랑스 제4공화국 시대를 중심으로 프랑스가 서아프리카 지배 당시 행했던 영화 정책을 해외령 영화위원회와 영화검열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서술하고 재해석해 보았다.

해외령 영화위원회의 정책은 2차 세계 대전 후 문제가 된 프랑스 제국주의의 이미지를 미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동화정책을 통해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화가 적절하다고 여긴 프랑스는 교육용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상영하고 배급할 수 있는 인프라까지 갖춘 영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다. 영화검열위원회는 아랍영화나 미국영화가 AOF지역민들에게 위해하다고 판단하여 상영을 제한하는 한편, 쿼터제를 실행하여서 프랑스영화가 지역 영화관에 다수 상영되도록 조치했다.

1960년대를 전후하여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을 맞이한다. 이들 국가의 독립에는 영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독립 이후 서아프리카 각국에서 영화를 통해 탈식민에 대한 의지와 독립국가로서의 시민의식

을 높이는 데에도 영화가 폭넓게 이용되었다. 청년교육과 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행하는 데에도 영화가 널리 사용되었다.

오늘날 서아프리카 영화 검열에 대한 해설이 사뭇 상반되어 등장한다. 프랑스는 영화라는 새로운 문화를 서아프리카 지역에 소개하여 이 지역이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문화적으로 풍부한 발전을 일구었다고 생각한다. 농공업을 중심으로 단지 식민 수탈만을 일삼았던 다른 제국주의 국가에 비해 프랑스는 서아프리카를 문화적으로 계몽시켜 주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영화 외 다른 외국영화 상영에 제제를 가했던 프랑스의 영화 검열이 서아프리카의 전통 사회를 지켜내는 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지 의문이 제기 된다. 서아프리카의 전통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프랑스 연구자들의 의견일 뿐이며, 미주 지역의 연구자나 아프리카 연구자들의 의견은 사뭇 다르다. 서아프리카 영화계의 대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비에이라와 썬벤의 증언을 보면 아프리카에서 영화산업은 식민시대 내내 제작과 상영에 있어서 아프리카인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영화산업 부문에서는 아예 아프리카인들에게 제한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프랑스와 영미권의 해석과 아프리카인들의 증언의 차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면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민진영(2017), 「식민과 탈식민의 세네갈 영화사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111권, 한국불어불문학회, 2017, pp.115~140.
- 민진영(2020),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영화검열 연구 I」, 『한국프랑스학논집』, 한국프랑스학회, 2020 pp.121~142
- Genova, James E.(2013), *Cinema and Development in West Afric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Barlet, Olivier(1996), *Les cinémas d'Afrique noire, le regard en question*, Paris: Harmattan.
- Bertho, Elara,(2016) « Filmer la résistance à la colonisation Stratégies postcoloniales de mémoire et d'oubli. À propos du scénario Samori de Sembène Ousmane », *Cahiers d'études africaines*, 224, URL : <http://etudesafricaines.revues.org>
- Goerg Odile (2015), *Fantômas sous les tropiques - aller au cinéma en Afrique coloniale*. Paris: Vendémiaire.
- _____ (2013), «Les films arabes, une menace pour l'Empire ? La politique des films arabes à la veille des indépendances en Afrique Occidentale Française». In: *Outre-mers*, tome 100, n°380-381, Missions chrétiennes et pouvoir colonial. pp. 287-312; (https://www.persee.fr/doc/outre_1631-0438_2013_num_100_380_5065)
- _____ (2012-2013), «Des cow-boys dans la savane : cinéma et hybridation culturelle en contexte colonial », *Afrika Zamani*, Nos 20-21, pp. 69-93,
- _____ (2012), « Entre infantilisation et repression coloniale », *Cahiers d'études africaines*, n°205, 2012, pp.165~198 (<http://etudesafricaines.revues.org/16988>)
- Jonassaint Jean(2010), «Le cinéma de Sembène Ousmane, une (double)

contre-ethnographie : (notes pour une recherche)», *Ethnologies*,
vol. 31, n° 2, pp. 241-286.

Ukadike, Nwachukwu Frank(1994) *Black African Cinema*,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Vieyra Pauline Soumanou (1958), «Propos sur le cinéma africain», *Présence
africaine* 22, pp.106~117.

_____ (1972), *Ousmane Sembène cinéaste, - Première
Période 1962-1971*, p.12~13

CNC, supplément au bulletin d'information n°27, avril 1954.

ANS Archives nationales du Sénégal, (www.archivesdusenegal.gouv.sn)

CAOM(AIX-EN-PROVENCE) Centre des archives d'outre-mer, FM 1 Affaires
Politiques (<http://www.archivesnationales.culture.gouv.fr/anom/fr/>)

❖ ABSTRACT

Film politics in French West Africa under the Fourth Republic of France

Min, Jinyou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scope of film politics under the Fourth Republic in French West Africa (AOF). The Overseas Commission du Cinema d'Outre-Mer was established under the Fourth Republic of France, and it has initiated a certain propaganda aimed at glorifying the image of French imperialism and thus going beyond its image spoilt by the Second World War. Considering cinema as a means to better manage its colonies, France sought to create a film industry to shoot, show, and distribute educational films. Arab films and American films, deemed dangerous for the natives of the AOF, saw limited screenings. On the other hand, the Overseas Cinema Commission has introduced quotas for many French films to be shown in AOF cinemas. It has restricted the screening of foreign films other than French films because they need to follow local customs and traditions. In particular, they pointed to Arab films and Western films of the United States as films that could agitate the natives of West Africa. The colonial government reluctantly feared that Arab cinema would be a threat to French colonial imperialism due to its growing worship of Islamic leaders. The colonial government feared that the innocent AOF residents would imitate the violence of American Western films, and it feared that the AOF residents would be shaken as they watched Europeans expel Indians from America.

Key Words : French West Africa, AOF (Afrique Occidentale française),
Cinematographic censorship in Africa, Fourth Republic of
France, Commission du cinéma d'outre-mer, CCFC
(Commission de contrôle des films cinématographiques)

■ 논문접수일 : 2021. 05. 10

■ 심사완료일 : 2021. 06. 01

■ 게재확정일 : 2021. 06. 02